김소희

일상 속 모든 것을 소재로 디자인 합니다.

살아 숨쉬는 일상 자체를 관찰하며 소외된 어떤 일상을 비추기도,

모두의 일상 속 공감대를 공유하기도 합니다.

서로 다른 일상들의 고민에 몰입하는 것으로 세상과 디자인을 배워가며

대상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.

Kim Sohee

I design everything in my daily life with materials.

It observes the daily life itself, reflects any marginalized daily life, and shares a consensus in daily life.

I learn the world and design by immersing myself in the worries of different daily lives

I believe that understanding objects deeply can make a good design.

askkg135@naver.com

behance.net/askkg1352de9